

<붙임 2> 2026년도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위탁과제-모델 1 제안서

2026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모델1: 자유학예교육형)

2026 . 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교양기초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2026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모델1 : 자유학예교육형]

과제명	모델1 : 자유학예교육형
과제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시민교육)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학 수업 이중설강 확대 및 시민 교육 강화 ○ (균형 잡힌 AI 리터러시 교육) AI 기술 이해와 인문·사회학적 이해를 균형적으로 기를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 (기초 지식 보안 및 학업능력 향상) 문·이과 통합교육 등으로 다양해진 입학생의 학업적 배경에 맞춰 기초 지식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전공 선택권 보장 ○ (전공 쏠림 완화 및 적성탐색 경로 마련)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전공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 <p>※ 이중설강 : 1개의 교과목을 전공과 교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제도. 향후 졸업 요구학점을 채울 때, 학생이 전공학점 또는 교양학점으로 할지 최종 선택</p>
[모델 1] 대학의 지원조건 및 요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1]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양 담당 기관이 단과대학임을 원칙 ② 기초학문 전공/학과가 해당 단과대학(문과대학, 이과대학 등)에 존속해야 함 ○ [모델 1] 요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양대학장은 교무위원임을 원칙으로 함 ② 교양대학이 독립적으로 교양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함 ③ 교양으로 적합한 우수 교과목을 2/3 이상 확보해야 함 ④ 자유학예(융합) 전공은 교양대학 소속으로 두고, 학과 학과장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담당 책임교수를 지정해야 함 ⑤ 자율전공선택제 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함 ⑥ 자유학예(융합) 교육과정을 복수전공으로 인정해야 함 ⑦ 전임 교수 강의 담당 비율 60% 이상 확보해야 함 ⑧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집중 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진행해야 함 (기본+심화 및 사후 모니터링 포함) ⑨ 이중설강 운영 기준(안) 마련 (이중설강 교과목 리스트, 전공생과 타전공

과제명	모델1 : 자유학예교육형
	<p>생을 구분하지 않는 분반 운영 원칙, 교과목 질 관리 등) ※ 교양교육 과정에 이중설강 된 교과목을 기초학문 전공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⑩ 기초학문 관련 참여 학과의 참여 동의서 (총장 확약 필요)를 제출해야 함 ⑪ 자유학예(융합) 교육과정에 AI를 활용한 교과목 개발 ([별첨 1] 참조)</p> <p>∴ [모델 1]의 요구조건은 최종 선발된 대학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가능함</p>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AI 등 수업 확대 및 내실화) 대학 기초교양교육에서 인문학, AI 수업 확대 및 시민교육 내실화 ○ (자유학예 교육 이상 실현) 자유학예 교육 구현을 통해 교양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의 지평 확대 ○ (변혁적 역량 갖춘 인재 양성)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 필요한 변혁적 역량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문제 해결, 변화 주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강화) 교양교육 정상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융합 교육 실현) 자유학예 교육 기반의 융합 교육 실현 가능 ○ (기초학문 생태계 유지) 기초학문의 이중설강 운영으로 기초학문 교과의 안정적 개설 기반을 확보하고 교양-전공 간의 학점 인정 유연성을 높여 학생 수요 변동에도 기초학문 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문 생태계 유지 및 강화 가능
사업비 및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10,000,000원 ○ 기 간 : 2026년 3월 ~ 12월 (1차년도) ※ 심의·자문위원회의 연차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개년 지원 예정

별첨 1

자유학예교육형 모델 구현(예시)

① **기반영역: 인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각 영역 내 학문적 혹은 융합(학제)적 주제를 다루는 과목들로 구성 (15학점 이상)**

-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 ① 필수 중핵과목들로만 구성
 - ②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
 - ③ 선택과목들로만 구성 교과목은 부제를 포함: 부제는 큰 질문의 형태

기반영역 교과목 예시

중핵 과목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누구인가?: 인간과 가치> • <사회 · 국가 · 세계> • <생명이란 무엇인가?> • <문명의 이해 I (고중세)> • <문명의 이해 II (근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학의 지평> • <신화와 설화, 그리고 문학과 역사: 단군신화와 삼국유사> • <중세에서 근대로: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 <인공지능 철학> • <인공지능 윤리> • <SF 장르의 철학적 이해> • <디지털 민주주의: 미디어와 정치 참여> • <갈등 · 혐오 · 폭력> • <민족 · 젠더 · 계급> • <글로벌 자본주의와 문화> • <기후변화와 생태계> • <대학의 역사와 자유교육의 이념> • <과학사의 논쟁>* <p><small>* (헬 헬먼 <과학사 대논쟁 10가지>, 조엘 레비 <과학자들의 대결> 같은 책을 교재로 해서 과학 자체의 발전과정과 함께 과학과 종교, 과학과 사회(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과목)</small></p>

② **융합영역: 인문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의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융합(학제)적 주제를 다루는 과목들로 구성 (15학점 이상), 선택과목으로 운영**

융합영역 교과목 예시

- <도시 · 문화 · 역사>
- <언어 · 마음 · 기계>

융합영역 교과목 예시

- <과학 · 기술 · 가치>
 - <인공지능과 디지털 인문학>
 - <소셜미디어와 사회 · 문화적 변동>
 - <음악의 과학적 이해 (음악과 인지과학 / 뇌과학과 음악)>
 - <인문적 사유와 예술적 상상력>
 - <예술과 문화산업>
 - <문화와 테크놀로지>
 - <행복의 철학과 심리학>
 - <판옵티콘: 빅데이터와 감시>
 - <글로벌 토픽 세미나>
- ※ 학생 주도 융합연구 교과목
- <예술과 과학기술>
 - <생태예술>
 - <바이오 예술>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환경, 생태 보전 그리고 인간의 가치 등을 생각하는 통합교과목)

③ 적용영역: 1~3학년 동안 학생들이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융합하여 실제의 현실적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는 교과목들로 구성(3~6학점)

- 교양 교육과정과 자유학예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할 수도 있고, 교양과정과 전공 과정의 학습 내용을 융합할 수도 있음
- 이유: 인문사회계열이 아닌 이공계, 상경계열 전공자라면 비교적 전공과 거리가 먼 자유학예 교과의 학습 내용과 전공을 결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임. 즉, 상당수의 자유학예 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경영학 또는 공학 전공자가 자신의 전공과목만 주로 이수한 학생들과 대비되는 차별점을 만들어 낼 기회가 될 것임
- 한 과목 내에서 개인별 또는 팀별 과제로 진행할 수 있음
- 학생들이 수행한 주제 및 학문 분야에 따라 연구 논문, 보고서, 제안서, 작품, 시제품,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적용영역 교과목 예시

- <캡스톤 디자인>
- <캡스톤 세미나>
- <캡스톤 프로젝트>

별첨 2

교양교육과정에서 AX교과목 개발 (예시)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도구로서 AI (기초문해 교과목의 수업 내용에 AI를 도구로 활용)	글쓰기 + AI	아이디어 발상-구성-표현 다듬기를 AI와 상호작용하며 순환적으로 진행해 설득력·명료성·개성적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근거 제시와 인용을 작업 흐름 속에 통합하는 교과목
	외국어 + AI	AI를 활용하여 실제적 상황 과제를 중심으로 읽기·듣기·말하기·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맥락에 맞는 어휘·표현·발화 감각을 반복 연습 속에서 체득하는 교과목
	컴퓨팅 사고 + AI	문제 상황을 함께 모델링하고 예시 해법을 실험·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분해·추상화·절차화를 체득하고, 해결 전략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교과목
	AI와 함께 생각하는 법	AI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결과에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AI 알고리즘에 갇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How to creatively us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현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적 역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글쓰기, 보고서 만들기, 전자책) 제작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주제로서 AI (자유학예 세부 영역에 각각 2~3개의 교과목 개선 및 신설)	AI 시대의 개인과공동체(AI는 공동체의 적인가?)	개인 권리와 공동체 책임이 AI와 함께 재조정되는 양상을 성찰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하는 교과목
	AI에 대한 철학적 접근	지식·판단·자율성·도구성 같은 핵심 개념을 통해 AI의 의미와 한계를 탐구하며 사유의 틀을 확장하는 교과목
	AI 시대의 algocracy	알고리즘이 중개하는 규칙·판단이 일상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공정성·책임성·설명가능성의 원칙을 토론하는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교과목
	컴퓨팅과 수리적 사고	논리·확률·통계·모형화 관점으로 문제를 구조화하고, 정량·정성 판단을 통합하는 사고를 기르는 교과목
	AI와 데이터 사회	데이터의 생성·수집·분석이 이루어지는 기본 흐름과 AI의 개입 방식을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개인정보·공정성·책임성과 같은 기초 쟁점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개론 교과목
	AI와 예술	창작·제작·감상의 흐름에 AI가 함께할 때 열리는 새 표현 가능성과 저작·진정성 논의를 함께 탐색하는 교과목
	AI와 디지털 휴먼	가상 인물·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정체성·관계·노동에 주는 변화를 사례로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기준을 논의하는 교과목
	AI와 생명윤리	의료·돌봄·연구 현장에서 AI가 함께 쓰일 때 생명존중·안전·책임의 기준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교과목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	지능·감정·창의성·몸의 의미를 다시 묻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탐구하는 교과목
	AI 시대의 인문고전	AI 시대에 고전을 어떻게 읽고 재해석할지를 탐구하며, 전통적 독해·토론을 AI와의 상호작용적 탐구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고전의 통찰을 오늘의 쟁점으로 재맥락화하는 교과목
	AI 시대 윤리학과 사회학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문제 즉, 알고리즘 편향,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AI 시대의 철학적 고찰	인공지능의 본질, 의식, 지능 등의 질문을 통해 인간과 AI의 관계 성찰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사람과 닮은 기계의 등장 맥락을 통해 상호작용·역할·권리·안전 등 사회적 합의의 방향을 토론하는 교과목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Mind)	인간의 뇌와 마음의 문제를 탐구하는 인지과학에 대한 고찰과 인간 지능의 본질과 원리에 근거하여 개발이 지속되어 온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학습을 역사적으로 전개한다. 나아가 다양한 주제 가운데 인지처리 및 언어 학습, 이해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증진한다. 특히 인간의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디지털 기술 시대 인간가치에 대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 (Literary Sensitivity and Imagination about Human Values in the Digital Technology Era)	사고와 기계적 사고의 유사점, 차이점, 상호보완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다 나은 세계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 문학을 통해 디지털 기술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인간의 존재와 가치 및 기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삶의 규범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 교과목의 목표가 있다. 디지털 사회가 심화될수록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사회 속 인간의 고통·소외, 비인간과의 공존 등 이전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 가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숙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윤리와 다양성, 평등, 포용(AI Ethics an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 교과목은 디지털 정보사회와 AI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양성, 평등 및 포용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다. AI가 발전할수록 왜곡,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AI 점유를 둘러싼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다양성, 평등, 포용의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커다란 화두가 될 수 있다. 이 교과목은 AI,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의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저작권 등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학습하려는 것이다.
AI에 대한 이해 (AI 자체에 대한 이해 교과목 1~2개 신설)	AI 윤리	AI 활용 전반에서 제기되는 안전, 공정성, 책임, 프라이버시 등 기본 원칙과 사고틀을 사례와 함께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
	인공지능 윤리와 로봇 윤리	소프트웨어형 AI와 물리적 로봇의 특성을 비교하며 자율성, 안전, 인간-기계 관계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살펴보는 과목
	AI 시대의 정보통신공학의 쟁점 - AI 윤리와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생성·전송·저장·활용되는 기본 구조를 개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와 윤리 이슈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AI 알고리즘	대표적 문제 유형(분류, 예측, 추천 등)과 알고리즘적 사고의 기초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과목
	인공지능 원리 이해(Fundamental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델링한 퍼셉트론(perceptron)으로부터 현대의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 이르는 인공지

분류	교과목 명(안)	내용(안)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능의 종류와 활용 분야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한다. 인공지능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학습을 한 후 미지의 데이터를 인지하는 원리를 이론과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인공지능 자체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해봄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삶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공지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목표를 둔다.
	인공지능 개론	AI의 역사, 주요 분야(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그리고 다양한 AI 모델의 원리를 개괄적으로 배우는 과목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산업·노동·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폭넓게 탐색하고, 기회·위험·준비 과제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과목
	인공지능의 철학	'지능·의식·자율성' 같은 핵심 개념의 철학적 전통과 현대 논의를 개관하며, 인간과 기계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하는 개론 과목